



손 씻기만 잘해도 병원감염 절반으로 줄어요. 감염 제로(Zero), 손 씻기로부터 시작!

병원은 의료행위를 통해 인류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의료의 최전선이다. 때문에 각종 의료 규정이 있으며 병원종사자를 비롯한 관계자는 이를 알고 의료규정을 따라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감염관리는 질병예방의 시작이다. 그 중에서도 손 씻기는 가장 기초적인 감염관리의 기본수칙이자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양심인 것이다.

손은 우리 신체 기관 중 유해 물질에 쉽게 노출되는 곳 중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감기가 코를 통해 직접 전염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바이러스에 노출된 손을 입이나 코에 갖다 대어 세균이 감염되는 경우가 더 많다. 최근, 언론보도 내용에도 언급이 되었지만, '손 씻기의 적극적인 실천'은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큰 유익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신체 가운데 각종 유해세균과의 가장 많은 접촉 부위가 손이며 질병의 70%가 손을 통해 감염된다고 한다. 질병의 대부분이 손에 의한 '접촉의 감염'이라고 한다면 당장의 손 씻기의 실천은 병원 관계자, 보호자, 환자의 구분을 망라해 노력해야 할 부분인 것이다.

질병 상태의 환자를 많이 접하는 의료인은 물론 감염 관리의 대상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있다. 즉, 환자가 의료진에게, 의료진이 환자에게 서로 전파 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염내과 김민자 교수는 "평소 버릇도 중요한데 얼굴을 자주 만지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고쳐야하며 침을 문혀 책장을 넘기는 버릇도 없애야 한다. 또 손을 자주 씻는 것이 결코 결벽증이 아니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주지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강조했다.

◆ 하루에 최소한 8번은 씻어야 각종 질병 예방

일반적으로 사람 손에 감염된 바이러스는 3시간 이상 활동하므로, 하루에 최소한 8번은 씻어야 손으로 인해 전염되는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물론 비누가 일부 세균을 어느 정도 죽일 수 있지만 감기를 유발하는 라이노바이러스 등은 없앨 수 없다. 하지만 비누로 손을 씻으면 각종 세균이나 박테리아를 씻어낼 수 있다. 물기를 잘 말리지 않으면 헛수고다. 젖은 손은 물기를 제거한 손보다 500배 많은 세균을 옮기기 때문이다. 손을 씻은 뒤에는 면수건보다 종이 타월로 닦는 게 낫다.

◆ 자주 씻을수록 더욱 건강해져 - 생활속 감염예방 수칙

쇠고기 · 돼지고기 · 닭고기 · 생선 · 과일과 채소 등을 만졌을 때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또 천으로 된 행주를 사용했거나 주방청소, 화장실을 청소한 뒤에 다량의 박테리아 및 곰팡이 균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손을 씻어야 한다. 평상시 생활하면서 공중 화장실 번기 손잡이와 수도꼭지를 만졌을 때에는 특히 감기의 원인이 되는 라이노바이러스를, 오래된 책과 돈도 세균의 주요한 서식처이며 컴퓨터의 키보드와 마우스 등을 사용했을 때 엄청난 양의 세균을 접촉한다. 가족들이 자주 사용하는 전화 및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도 여드름 및 뾰루지의 원인

효과적인 손 씻기 단계 (Steps to wash your hands effectively)



손창성 병원장(가운데)이 병동에서 손씻기 캠페인을 펼치고있다.



오동주 의무부총장(왼쪽)과 손창성 병원장(오른쪽)은 손씻기를 통한 원내 세균감염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균이 있을 수 있다. 아이들에게는 적어도 귀가 후, 식사 전, 화장실에 다녀올 때 정도는 반드시 손을 씻도록 가르쳐야 한다. 손은 자주 씻을수록 좋으며 노인이나 만성질환자는 수시로 씻도록 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자주 씻는 것은 결코 결벽증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 손창성 병원장 등 환자접점부서 방문해 손씻기 캠페인 펼쳐

한편, 안암병원(원장 손창성)은 4월 15일 오전 8시30분 '손씻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쳤다. 손창성 병원장, 박진우 기획실장, 김유진 경영관리실장, 김영분 간호부장 등 병원 보직자들은 각 병동을 비롯한, 중환자실, 수술실, 외래 등 환자접점 부서를 모두 방문해 손씻기의 중요성을 알리며 캠페인에 나선것. 손창성 병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실무에서 수행하는 감염관리의 기본원칙을 다시한번 되짚어보며 손씻기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민자 감염관리실장은 "병원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을 대상으로 했던 위험관리 시스템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전 교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만이 우리병원이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다. 위험관리를 통해 자신은 물론 환자를 보호하고 병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모든 직원 개개인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꽃보다 CEO



왼쪽부터 오동주 의무부총장, 윤지혜 간호조무사 부부, 손창성 병원장

▶ **고대의료원 경영진의 초특급 감동서비스**
 감성경영이 화두다. 그러나 내실없는 '구호' 같은 감동실천은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하다. 최근, 날로 극심해지는 경제불황 속에서도 남다른 경영철학 실현과 보다 과감한 혁신 드라이브

로 위기상황을 정면돌파하고 있는 고려대의료원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고려대의료원(의무부총장 오동주)은 최근 교직원 감동서비스의 일환으로 본원에서 출산한 교직원 및 배우자를 위해 꽃바구니를 선물하는 한편, 생일을 맞은 교직원 배우자에게도 축하 생일카드를 전하고 있다. 이들 모두 고대의료원의 최고 수장이 의무부총장이 직접 친필 사인을 하고 직원을 찾아 선물을 전하기도 한다. 최근, 안암병원에서 건강한 아들을 출산을 한 윤지혜 간호조무사는 뜻밖에 손님에 놀랐다. 오동주 의무부총장과 손창성 안암병원장이 손수 꽃바구니를 들고 병실을 찾은 것. 어느 때보다 따뜻한 미소와 덕담으로 격려해 준 경영진의 배려에 윤 간호조무사와 가족은 또한번 감동했다. 윤 간호조무사는 "처음엔 너무 깜짝 놀랐는데 저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매우 영광스럽고 기쁜 일" 이라면서, "이렇게 직원 하나하나에 마음 써주는 것이 더 없이 감사할 따름" 이라고 말했다. 얼마전 생일을 맞은 한 교직원의 아내도 "남편보다 더 일찍 생일축하인사를 받았다.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써주시니 뭐라 감사함을 표현해야 할 지 모르겠다" 면서, "고대병원을 다니는 남편이 자랑스러운 순간이었다" 고 말했다. 의료원장과 산하 병원장 등 의료원 경영진들이 실현하고 있는

이와 같은 섬김과 감성경영은 취임 초기부터 현재까지 계속 진행형이다. 투명한 인사정책과 함께 정기적인 교직원 단합대회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교직원의 화합을 도모하고 있으며, 경영진이 개인 연락처를 오픈하고 직접 현장을 돌며 모든 교직원들의 각종 아이디어와 담론을 바로 경청하고 있다. 심지어 직원들의 생일을 비롯해 명절, 각종 기념일까지도 일일이 챙겨 교직원들에게 감사의 메시지와 선물을 전하는 등 新병원문화 창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CEO와 함께 한잔 어때?

최근, 의료원은 오동주 의무부총장과 신경 의무기획처장, 이해원 교육수련실장 등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신입직원 교육프로그램을 마친 새내기 직원들과 함께 안암동 한 호프집에서 서로 맥주잔을 기울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 신입직원은 "처음에는 부총장님이 마냥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이러한 자리를 함께 하면서 마음이 한결 편해지고 직장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다" 고 말했다. 신입직원들과 일일이 직접 대면하면서 대화를 통한 벽을 허무는 오동주 의무부총장의 적극적인 감성경영은 신입직원들의 애사심과 자신감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

환자의, 환자에 의한, 환자를 위한... QI팀

일반인들에게는 좀 낯설은 병원내 부서겠지만 병원직원이라면 적정진료관리팀을 모르면 정말 간첩이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홍수, 사람들의 인식수준의 변화 등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수동적으로 서비스를 수용하지 않는 않는다. 오히려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자 스스로 병원을 선택한다. 이러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병원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각종 기준에 맞추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중심에 바로 적정진료관리팀(이하, QI팀)이 있다.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노력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료의 질 향상 활동 즉 QI(Quality Improvement)라 하고, 이러한 QI활동을 지원 하는 것이 적정진료관리팀의 가장 큰 업무 중 하나이다.

▶ QI 활동 진행 및 지원

현재, 안암병원 QI팀은 은 2003년에 간호사 1명을 전담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간호사 2명이 전담자로 근무하고 있다. '적정진료및환자안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한 병원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를 담당하는 것이 업무의 핵심이다. 부서별 QI활동을 지원하며 전직원이 QI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QI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전직원 대상 QI교육, 신입직원 및 의료직 대상 QI교육, 각종 QI관련 학회 참석, QI활동의 적절성 및 효율성을 검토 및 피드백 제공, QI 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각 부서에서 효과적인 QI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역할을 한다.

▶ 병원평가 아전사령관

병원평가 결과는 언론에 공개되어 고객의 병원선택 기준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QI팀은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 주관 의료기관평가, 대한병원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병원신입평가(병원표준화심사)에 대비한 전체 준비를 총괄하여 담당하고 있으며, 적정성평가, 응급의료기능수행평가 등의 각종 평가에 대비하여 실무 부서를 지원하고 있다. 외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는 지표 평가라 해도 과언

이 아니다. 적정진료관리팀은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각종 지표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하여 평가에 대비하고, 부족한 부분을 질 향상 활동과 연계시키는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 예로는 수술예방적 항생제사용관련지표, 뇌졸중평가지표, 모성 및 신생아지표, 폐렴지표 그리고 중환자지표 등이 있다.

▶ 환자의 안전과 병원수준 높이는 환경조성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은 환자의 안전과 질 향상, 안전하고 효율적인 업무환경 조성을 통한 직원만족도 향상, 환자와 보호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권리를 존중하며, 유해한 사고와 안전문제를 적시에 보고하여 이를 통해 사고재발을 예방할 수 있도록 문화를 조성하여 모든 직원과 함께 질 향상과 환자안전 우선을 위



QI 및 병원평가 준비팀원들, 왼쪽부터 황인선, 진도연, 박유선, 유정화, 이만희, 김은희, 이영순

해 협력하는 문화와 리더십을 창출하고자 JCI인증을 준비하고 있다. JCI인증을 통해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 변화하고자 하는 목표는 환자와 직원의 안전을 생각하는 병원, Leadership이 발휘되는 병원, 타당하고 원활한 진료체계 구축, 신뢰할 수 있는 의무기록 작성, 인력관리가 체계화 되어 있는 병원이다. 이러한 절대적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병원평가준비팀(T/F)이 JCI인증 준비에 대한 전체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환자의, 환자에 의한, 환자를 위한 QI팀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

글_ 원내기자 조규은(종합건강검진센터)방사선사
 사진_ 원내기자 강용길(핵의학과)방사선사

노동부 장관 표창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기업’ 선정

‘에이스클럽’ 인증 후 직원만족도 높은 병원으로 재 인증 받아...



오동주 의무부총장(왼쪽)과 서울지방노동청 장의성 청장




고려대의료원(의무부총장 오동주)이 4월 1일 노동부(장관 이영희)로부터 여성고용확대 등에 관한 공로를 인정받아 장관 표창을 받았다. 노동부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 으로 선정해 여성고용확대에 기여한 기업에게 수여하는 이번 표창은, 지속적인 국가 및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여성고용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지난 2005년 ‘남녀고용평등법’ 이 개정됨에 따라 2006년부터 ‘고용개선조치 제도’ 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그간, 고려대의료원은 여성근무자의 특성을 고려한 인력운용과 근무여건 보장을 통해 여성의 근무만족도를 증진시키고자 출산 및 육아, 인사 등에 관한 다채로운 정책적 지원을 꾸준히 실천해 왔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간호사의 이직을 예방하기 위해서 인력충원을 비롯한 멘토링제도 활성화, 프리셉터 교육, 업무매뉴얼 강화 등을 위한 노력과 함께 신규간호사 백일잔치, 신입사원 부모 감사서신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여성의 조직만족도를 증진시키고 있다. 또한, 육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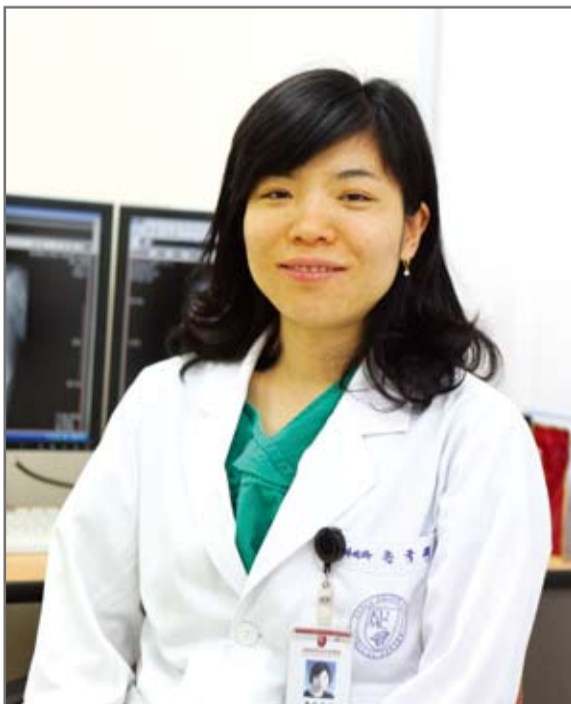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원 산하 안암, 구로, 안산병원 개별 사업장에 모두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는 한편, 병원에서 보육비를 보조하는 등의 여성근로자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전체 직원 중 약 2/3가 여성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여성근로자의 출퇴근거리, 육아, 교육 등을 감안하여 희망근무지를 조사, 직무에 맞는 범위 내에서 인력을 재배치해 근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오동주 의무부총장은 “병원의 특성상 많은 수의 여성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만큼, 직장 여성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인 육아문제를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3개 병원 모두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원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향후에도 여성근로자에 대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국내 최고의 일하고 싶은 병원으로 자리를 굳혀 나가겠다” 고 밝혔다.

이번 노동부 장관표창 관련, 의료원은 4월 6일 오후 3시 장의성 서울지방노동청장의 내방을 받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 현판 수여식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려대의료원 오동주 의무부총장, 선경의무기획처장, 손창성 안암병원장, 장의성 서울지방노동청장, 최대술 고용평등과장, 정정희 근로감독관 등이 참석했으며, 장의성 청장은 “고려대의료원이 실천하고 있는 여성고용확대와 여성근로자 근무여건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감사를 드리며, 이를 바탕으로 고려대의료원이 우리나라를 뛰어넘는 세계적인 병원으로 성장해 나가길 기원한다” 고 말했다.

한편, 고려대의료원은 이번 수상 이외에도 지난 2월 의료기관 최초로 서울지방노동청(청장 장의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고용친화적인 좋은 일자리 기업’ (에이스클럽)으로 정식 인정받은 바 있어, 근무하고 싶은 병원이자 근무만족도가 높은 의료기관으로 그 명성을 높여가고 있다. 

이부서 이사람

따뜻한 심장을 나누는 흉부외과 봉달희, 손국희 교수



흉부외과 손국희 교수

‘아프고 외로운 사람들을 보면 돕고 싶고, 도움이 되면 무엇보다 기쁘다. 실력 있는 심장전문가가 되어 심장병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고 싶다...’ 한때 인기드라마였던 외과의사 봉달희의 캐릭터다. 고려대 안암병원에도 봉달희의 극중 캐릭터를 꼭 빼놓은 흉부외과 의사가 있다. 바로 안암병원 흉부외과 손국희 교수다.

어른들의 심장을 비롯한 혈관수술이 전문인 흉부외과 손국희

교수, 웬만한 남자들도 하기 힘들어 ‘Cardiac Surgeon’ 이 아니라 ‘Crazy Surgeon’ 이라 불릴 정도로 밤낮을 병원에서 보내야 하는 고된 흉부외과 의사 중 유일한 홍일점이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대수술이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과 섬세한 손끝은 이내 심장을 힘차게 뛰게 하며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다. 수술뿐만 아니라 미래의학을 선도하는 새로운 심장치료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인공심장센터와 함께 인공심장 개발을 비롯한 심장수술에 쓰이는 새로운 의료기구들이 실제 환자에 미치는 영향 등 연구활동에도 열심이다.


흉곽내의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수술을 하는 흉부외과. 대부분 생명과 직결되는 고난이도 수술로 고도의 집중력과 술기를 요한다. 고려대 안암병원 흉부외과 김광택 교수를 비롯해 이성호 교수, 강문철 교수팀은 폐질환과 식도 질환 분야의 국내 최정상팀으로 하지정맥류나 흉곽 기형 수술역량도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또한, 심혈관 분야는 심장수술의 달인인 선경 교수와 정재승 교수, 그리고 손국희 교수가 심장 및 말초 혈관 질환에 대한 정밀한 수술로 정평이 나 있다. 뿐만아니라 안암병원 흉부외과는 세계적인 인공심장개발역량을 자랑한다.

손국희 교수의 뛰어난 수술실력 외에도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환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으로 유명하다. 손 교수는 “환자를 진료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제가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보통 심장 질환 환자들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실정상 어려운 경제 사정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수술후 최대한 부담가지 않고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라며 여지없이 선한 본성을 드러낸다.

“제가 아직 어리고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제가 환자에게 무엇을 베풀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연세드신 분들이나 많은 환자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인생에 있어 제가 또, 의사생활을 하는데 있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가르침을 줄 때가 많아요” 환자들과 여러 가지 고민을 함께 나누는 손 교수는 이것만으로 환자분들이 많이 고마워하시는 것을 보면 새삼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느낀다고 한다.

이렇게 손 교수가 진정한 의사가 되기까지는 숱한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슬기롭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헤쳐 나가면서 보람 또한 많았다. 레지던트 시절 태어나자마자 횡격막 탈장으로 생명이 위독해 응급수술 받은 아기가 있었는데, 중환자실에서 한 달간 집중치료를 받는 동안 손 교수를 비롯한 치료팀은 아기의 부모나 다름이 없었다. 자기 자식처럼 돌본 아기가 건강해져 퇴원하는 것이 마냥 흐뭇해 눈시울을 적셨다고 한다.

아직도 배울 것이 너무 많다는 손국희 교수, 겸손을 통해 의술 보다는 인술을 체득하고 있는 따뜻한 심장을 지닌 손 교수는 앞으로 이 따뜻한 심장을 계속 나눌 수 있는 의사가 되길 바라고 있었다. 그런 열정 때문일까 결혼은 아직... 하지만 집조차 잘 들어가지 못하는 빵점짜리 딸이기보다는 훌륭한 의사로 성장해 가고 있는 손 교수는 집에서 사랑스런 딸로서, 병원에서 의사로서의 그녀는 가족과 환자들의 영원한 희망이다. 


프로골퍼 미셸 위, 고려대의료원에 1억원 기부



프로골퍼 미셸 위 선수가 저신장증 환자들의 치료비에 써달라며 고려대의료원(의무부총장 오동주)에 1억원을 기부했다. 지난 4월 9일(목)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금 전달식에서 미셸 위 선수는 오동주 고려대의료원장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미셸 위 선수, 오동주 고려대의료원장, 변관


수 고대 구로병원장, 송해룡 정형외과 교수, LPK(Little People of Korea)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번 기금을 통해 치료와 수술을 받게 될 저신장증 환아와 가족들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미셸 위 선수는 기금 전달식에 앞서 롯데백화점 나이기 매장에서 저신장증 환아들을 만나 가방과 신발 등을 선물했다. 특히, 지난 2006년 미셸 위 선수가 고려대의료원에 기부한 1억 5천만원으로 수술과 치료를 받았던 환아들도 이 자리에 참석해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미셸 위 선수도 3년 전에 비해 키가 훌쩍 커진 환아들을 보며 감격해했고, 직접 가방을 매 주고 신발을 신겨주는 등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미셸 위 선수는 “3년 전 정말 작았던 친구들이 치료를 받고 많이 큰 모습에 깜짝 놀랐다. 훨씬 예뻐지고 당당해진 것

같아 기쁘다” 며 “그 동안 나에게 도움을 받았던 친구들이 보내준 편지들 고맙게 잘 봤고, 오늘 다시 만나게 돼 반기웠다. 한 친구가 보내 준 인형은 항상 골프가방에 달고 다니는데 3년이 지나 많이 낡았다. 앞으로도 여러 친구들의 치료에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한다” 고 소감을 밝혔다. 오동주 고려대의무부총장은 “미셸 위 선수의 도움은 단순히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저신장증 환아들이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일이다” 고 감사의 마음을 전한 후 “도움받은 환아들이 미셸 위 선수의 경기 때마다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기도한다고 들었다. 이들에게 더 큰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경기에도, 환아들에게도 더욱 힘써달라” 고 당부했다. 

고려대의료원, 세종병원 박영관 이사장으로부터 1억원 기부받아

고려대의료원은 4월6일(월) 오후2시 의무부총장실에서 세종병원 박영관이사장으로부터 1억원의 기부금을 전달받았다. 오동주 의무부총장, 안암병원 순환기내과 김영훈 교수, 세종병원 박영관 이사장, 조태구 진료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된 이날 기부금은 심혈관질환관련 젊은 연구자를 위한 장학금으로 쓰여질 예정이다. 박영관 이사장은 “심혈관 질환 연구활성화를 위해 긴 안목에서 기부금을 전달한 만큼 훌륭한 젊은 연구자를 지원하는데 쓰여지길 바란다” 며 기부금 전달의 의의를 밝혔다. 이에 오동주 의무부총장은 “지정

기부의 뜻을 살려 장차 대한민국의 의학계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양성을 위한 기금으로 소중하게 사용 하겠다” 며 기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한편,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세종병원은 1982년 개원 이후 현재까지 심장병 수술관련 국내 최고 수준의 수술성공률과 풍부한 임상경험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난 2005년 7월 전문병원으로 선정된 20여개의 의료기관중 유일한 심장질환 전문병원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고려대 안암병원과 심혈관질환 관련 공동 연구를 비롯한 인적교류를 활발히 진행 중 이다. 



천준 교수, 세계 명의들과 4대륙 로봇수술생중계




(WRUS: 4th World Robotic Urology Symposium)에서 세계 최초로 4개 대륙(미국, 유럽, 호주, 아시아)에 생중계될 로봇수술 국제 화상회의에서 아시아 대표로 공동 좌장으로 참가해 공

고려대 안암병원(원장 손창성) 로봇수술센터가 세계 정상급 실력을 인정받으며 또다시 로봇수술 신흥명가다운 면모를 과시했다. 전립선암 수술의 대가 비노기과 천준 교수가 4월 6일부터 8일까지 미국 올랜도에서 열리는 제 4회 세계 로봇 비뇨기과 학술대회

동 진행하는 영예를 안게 됐다. 아시아 대표자격으로 참가하는 천준 교수는 미국 현지에서 세계 제1의 로봇수술 교육기관이자 수술센터인 ‘애플로리다병원 세계로봇수술연구소(GRI: Global Robotics Institute)’ 에서 세계 최고 권위자 파텔 교수를 비롯해 미국, 유럽 등 세계 톱클래스 의료진들과 함께 라이브서저리와 공동 국제 화상회의의 진행을 주관했다. 이 과정은 4개 대륙으로 실시간 생중계되어 큰 호응을 받았다.

이번 화상회의에서 고려대 안암병원 비뇨기과와 로봇수술센터도 아시아 지역 주관병원으로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되어 학술대회 기간동안 안암병원 대강당에서 로봇수술과 관련한 임상과 전문가들을 초빙해 관련 행사과정을 직접 생

중계하고 미국 현지 학술대회 참여 교수들과 직접 학술적 토론을 가졌다.(한국시간 4월 6일 오후 8시 ~ 새벽 1시, 4월 7일 오후 8시 ~ 새벽 1시) 천준 교수는 그동안 미국, 유럽 등 서구 인들과는 다른 한국인의 체형에 맞춘 독창적인 수술법을 고안해 국내는 물론 세계의 주목을 받아 왔으며, 2008년도에는 중국 교수 30여명이 직접 고려대 안암병원을 찾아 로봇수술과 관련한 심포지엄을 갖은 바 있다. 천준 교수는 빼어난 임상역량을 통해 이번 학술대회에서 아시아인으로서는 이례적으로 2개 수술생중계(live surgery)의 공동 좌장과 2개 학술 프로그램의 좌장으로 참여하게 되는 등 세계적인 명의로 인정받고 있다. 


김병수 교수, ‘21세기 탁월한 2,000명의 지식인’ 등재



년도 판에 등재됐다. 동시에, 김 교수는 IBA(International

안암병원 김병수 교수(종양혈액내과)가 최근, 영국의 ‘국제인명센터(IBC, 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er, Cambridge, England)’ 에서 발행하는 세계적인 인명사전인 ‘21세기 탁월한 2,000명의 지식인(2000 Outstanding intellectuals of the 21st Century)’ 2009년~2010

Biographical Association)의 평생 Fellow로 위촉된다는 통보를 받음으로써 탁월한 지성과 함께 수준높은 연구업적을 인정받는 영예를 안았다. 백혈병, 림프종, 재생불량성 빈혈 등 난치성 혈액질환 전문의인 김병수 교수는 국제 저명 SCI 학술지 논문 60여 편을 비롯하여 16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줄기세포 관련 국제 연구 과제를 활발히 수행해 왔으며, 2008년에는 IBC 와 함께 세계 3대 인명사전으로 인정받고 있는 ‘마르퀴스 후즈후(Marquis Who's Who)’ 2009년도 판에도 등재된 바 있다. 김 교수는 현재 안암병원 종양혈액내과

과장과 생명윤리심의 위원장, 고대의대 의학교육학 교실 수업교수, 교육부학장 및 고려대 대학원 의학회 부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국내외 전문 학회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SCI 학술지 논문심사위원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김 교수는 줄기세포 연구 뿐 아니라 연구윤리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정부 줄기세포 주 등록 자문위원 및 생명윤리교육평가전문위원, 대한윤리심의기구협의회(KAIRB) 정책위원 등으로 위촉받은 바 있다. 

호스피스회, 제15회 정기총회



안암병원 호스피스회(회장 배정원, 유방내분비외과)는 지난 3월 20일 병원 8층 중회의실에서 '제 15회 호스피스회 정기총회'를 실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자원봉사자 및 회원들을 격려하고 지난해 활동사항 검토와 200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확정, 임원선출이 이루어졌다. 현재 호스피

스회는 자원봉사자 39명을 포함해 의료진 등 총 177명의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1,300회 호스피스 봉사활동과 1,200회 이미용봉사를 비롯해 미술 및 음악치료 봉사, 책자 및 소식지 발간, 암환자 및 보호자 정기교육, 지방에서 상경한 환자나 말기 암환자를 위한 무료숙식소인 클라라 쉼터를 운영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1995년 창립한 고대 안암병원 호스피스회는 2004년 행정자치부 장관상과 성북구청장상을 2005년에는 성북문화대상 봉사부문대상 등을 수상하는 등 병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순수 자원봉사 단체로 성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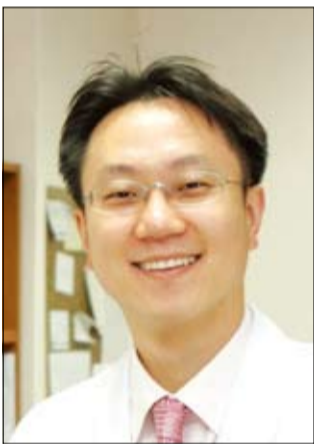
심혈관센터 지우진 간호사 『제58회 미국심장학회』 참가



심혈관센터 지우진 간호사는 3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제58회 미국심장학회(58th Annual Scientific Session)에 참가하였다. 미국심장학회에서 주최한 이번 학회는 고혈압, 심부전, 허혈성 심질환, 부정맥 등 여러 심질환과 관련한 최신 지견에 대한 소개와 세계 각국의 심질환 관련 연구 결과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또한 항혈전

약물을 투여하는 심방세동 환자들에 있어 출혈 및 뇌졸중 발생 위험의 감소방안에 대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특히 3년에 걸친 만성신장질환 환자들에 있어 심장질환 발생인자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 및 고혈압 환자에서 좌심실 비대로 야기되는 위험인자들의 메커니즘에 대한 발표 등이 많은 호응을 얻었다. 지우진 간호사는 "이번 학회를 통해 심혈관계 질환 관리 및 치료방법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배울 수 있어 기뻐하며 앞으로 환자들의 질병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방광암에도 로봇수술 시대 열리나? 비뇨기과 강석호 교수팀 방광암 로봇수술 국내 최다 수술



영휘 교수, 대장항문외과 김진 교수)은 국내 최다인 침윤성 방광암 환자 20여명을 로봇수술한 결과, 모든 환자에서 절제면연음성 및 충분한 수의 임파선을 절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 중 직장 및 주요혈관 손상이나 개복술로의 전환 등

로봇수술의 적용범위가 전립선암, 대장·직장암을 비롯해 갑상선암, 위암 등 각 임상과 별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방광암에도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 안암병원 로봇수술센터 강석호 교수팀(비뇨기과장 천준 교수, 고

이 없이 모든 수술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소침습적인 로봇수술로 환자의 회복을 돕고 수술 후 합병증 발생을 줄였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주목하는 결과로, 이미 세계 유력 병원 8곳만 참여하는 국제로봇방광암수술컨소시엄(International Robot-assisted Cystectomy Consortium)에서도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공동연구 제의가 들어온 상태다.

국내 비뇨기계 암 중 가장 흔한 암 중의 하나인 방광암은 크게 방광점막이나 점막하층에 국한돼 생긴 표재성 방광암, 암이 근육층을 침범한 침윤성 방광암, 그리고 전이성 방광암으로 구분된다. 이중 전체 방광암의 약 25%를 차지하는 침윤성 방광암은 매우 공격적인 암 중의 하나로, 방광과 함께 골반 및 복강 내 림프절을 비롯해 남자의 경우 전립선과 정낭을, 여자의 경우 자궁을 들어내야 하는 근치적방광절제술이 표준치료로 시행되고 있다. 또한, 방광을 들어내면 소변을 모

아두는 주머니가 없어지기 때문에 주로 소장의 일부를 떼어내 인공방광을 만들고 그 출구를 요도에 연결하거나 별도의 오줌주머니를 차게 해 소변을 배출시켜야 하는 요로전환술이 필수적이다. 때문에 6-8시간 이상의 장시간 수술이 불가피한데, 개복수술의 경우 장시간 수술로 인한 장운동 저하나 심폐기관 및 요로계의 합병증 발생률이 30-40%에 이르며 심지어 수술 후 사망률도 5-7%로 보고되는 대수술이다. 비뇨기과 강석호 교수는 "난이도가 높고 합병증 위험이 높은 근치적방광절제술을 로봇을 이용하여 시행하는 것은 아직 장기간의 추적관찰결과가 필요한 신치료법이다"라고 소개하면서, "하지만, 로봇 방광암수술이 방광 및 임파선절제술에서 개복수술과 마찬가지로 종양수술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장운동저하, 통증, 출혈을 줄여 환자의 회복속도를 빠르게 하고 최소침습으로 몸에 흉터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어 향후 더 많은 시술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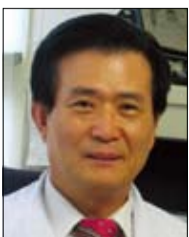
인근지역 4개구 서울시구의사회장 선출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 노원구의사회와 협력관계 지속해

최근, 노순성 성북구의사회장, 장현재 노원구의사회장, 유덕기 도봉구의사회장, 박병일 강북구의사회장 등 인근 4개 지역구의사회장이 선출됐다. 이들 4개구(강북, 노원, 도봉, 성북구)의사회는 합동 연수교육을 위

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지난 4월 16일과 23일에는 '4개구 의사회 합동 춘계 연수교육'을 고려대안암병원 8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손창성 안암병원장은 이번 연수교육 인사말을 통해 "오늘과 같은 정기적인 연

수교육이 의료에 대한 최신지견을 습득하고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은 물론 고려대 안암병원과 개원가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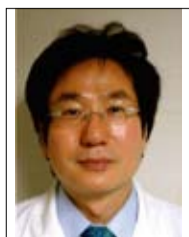
려대 안암병원과 인근지역 4개구 의사회는 지역사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노순성 성북구의사회장
1947년생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노신경외과 원장



장현재 노원구의사회장
1961년생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파티마 의원 원장



유덕기 도봉구의사회장
1955년생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유덕기 내과 원장



박병일 강북구의사회장
1956년생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박병일성형외과 원장

쾌변을 위하여



진윤태 교수

학시절에는 친구랑 다이어트 목적으로 여러 민간식품을 먹고 조금 호전되었으나, 이젠 여러종류의 변비약을 매일 복용하고 남몰래 관장약도 써보지만 허사라고 얼굴을 찌뿌린다.

변비는 가장 흔한 위장관 증상이지만 각 병원마다 변비 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적 접근이 일정하지 않고 효과적인 치료가 이루어 지지 않아 실제 많은 환자들이 고생을 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변비 환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실정이다. 위 경우처럼 환자들이 본인만의 방식으로만 해결하려다 변비가 악화되어 내원하는 환자가 의외로 많아, 쾌변에 도움이 되는 올바른 지식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변비의 치료로 약을 우선하

는 것은 금물이다.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하고 반수용성으로 수분을 다량 함유하고 장내로 흡수가 안 되는 식이 섬유질인 과일이나 채소, 감자나 고구마 현미밥 등의 식이요법과 운동 마사지나 산책, 조깅, 수영 등의 전신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은 변비해소와 다이어트의 두 목적 이외에도 대장암의 예방효과가 있다. 하지만 영양소의 균형을 파괴한 무조건적인 저열량 다이어트는 섭취 음식물의 감소로 인해 대장운동 저하로 변비가 진행되고 대장과 항문조절기능을 악화시켜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다. 두 번째로 주의할 점은 민간요법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소평채널에 하루가 멀다고 등장하는 다시마, 알로에, 동규자차 성분의 다이어트 식품과 무조건적인 변비약의 복용, 특히 센나 성분인 자극성 하제의 장기복용은 심각한 질병은 아니지만 대장의 흑피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 복용으로 인해 점막 및 신경 손상을 야기하여 나중에 약물치료에 듣지 않을 뿐더러 변비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유도한다. 따라서 변비의 초기 치료로는 이러한 자극성 하제보다는 장의 팽창을 유도하여 배변을 유도하는 팽창성 하제가 우선적으로 추천된다. 이러한 약제로도 듣지 않을 경우에는 삼투성 하제인 마그네슘이나 락툴로스 성분의 약을 단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자극성 하제

는 심한 변비 환자에서 일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환자 본인이 직접 관장약을 사서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관장약은 직장을 자극하여 감각운동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어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변비약의 선택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가 필요하다. 변비의 원인은 부위별, 장관의 기능 또는 구조적 이상, 근육과 신경 기능에 따라 매우 다양하므로 변비증상을 치료하기 앞서 변비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한 적절한 검사가 우선되어야 한다. 환자의 아픔도 힘들지만 잘못된 자가치료로 현상태에서 의사로서 크게 도움 만한 방법이 없는 경우는 치료의사로서 안타가움을 느끼는 적이 많다. 따라서 변비의 증상 초기에 대장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변비의 다양한 원인을 파악하여 대장항문의 자율적 회복기능을 최대화하도록 하는 단계적인 치료의 선택을 위해서 변비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적이다. 결론적으로 쾌변을 위한 첫걸음은 자신에게 온 변비의 원인을 아는 것이며, 약제의 남용보다는 운동과 식이의 변경을 통한 생활습관의 변화가 변기 위에서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자기만의 시간을 만드는 전제 조건임을 강조하고 싶다.

글_진윤태 교수(소화기내과)

친절리더 칼럼

책소개

복을 부르는 미소~! 오늘부터 함께 입꼬리를 올려보면 어떨까요~?



친절리더 박미선

우연히 인터넷에서 두 장의 모나리자 그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누구나 알고 있는 모나리자였고 또 하나는 뭔가 다른 느낌의 모나리자였습니다. 분명 다른데 왜 달라 보이는 것일까? 그때부터 저의 숨은 그림 찾기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냥 봤을 때는 눈매도 다른 것 같고, 코도 다른 것 같고, 이마에 얼굴 윤곽까지 모두 달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 두 그림의 차이는 단 하나!! '입꼬리' 뿐이었습니다.



입꼬리 하나 달라졌을 뿐인데 두 모나리자는 전혀 달라보였습니다. 밝고 편안하고 온화한 느낌의 모나리자는 저도 모르게 '으음~' 하며 그 미소를 따라해 보고 싶게 만들어 주었고, 또 다른 하나의 모나리자는

바라보는 제 마음까지 우울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고 있자니 나이까지 더 들어보였습니다. 단지 입꼬리가 올라가고 내려갔을 뿐인데 말입니다.

허영만의 '꿀'이라는 책을 보면 입은 복을 담은 그릇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입꼬리가 올라가서 그릇의 깊이를 더하면 더 할수록 복을 더 많이 담을 수 있고 입꼬리가 내려가 있으면 들어온 복도 모두 흘러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개구리 뒹다리~~~", "하와이~~~꿀꿀이~~~이뿌지~~~"

하루에 5번씩만 반복해서 연습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입꼬리는 귀에 걸려있을 것입니다.

대신!! '이~~' 를 받을 때 입꼬리가 귀 쪽으로 당겨지도록 하는 것과 당겨진 상태에서 10초~15초정도 멈추는 것이 연습 포인트입니다!!

복을 부르는 미소~! 오늘부터 모두 함께 입꼬리를 올려보면 어떨까요~?

글_ 친절리더 박미선 (고객서비스팀)

일 잘하는 사람들이 바로 써먹는 친절한 "비즈니스 글쓰기 클리닉"

얼마전 '자기개발 및 성과향상 계획서' 작성하느라 속을 끙끙 앓다시피한 직원이 꽤 많았다는 소식을 접했다. 글쓰기에 알리지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의외로 많은 듯해 안스러워 보였다. 오죽하면 글쓰지 않는 세상에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외쳤을까?

그러나 따뜻하면서도 냉철한 것이 세상의 정서다. 글 잘쓰는 인재와 조직이 경쟁 우위를 점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처럼 글쓰기에 고민스런 직장인을 위한 한편의 책이 발간되었다. 어렵게만 느껴지던 글쓰기를 구체적인 사례와 예문을 통해 아주 친절하게 클리닉해주는 '비즈니스 글쓰기 클리닉' (전나무숲 刊)이 바로 그 것이다.



이 책의 저자인 하구치 유이치는 대학,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글쓰기를 가르치는 교수이며 250만부 밀리언 셀러를 저술한 작가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직장인들이 꼭 알아둬야 할 글쓰기의 핵심 포인트를 알기쉽게 짚어준다. 특히, 제안서, 기획서, 자기PR서 등 비즈니스 실무 문서에서 웹 2.0시대의 대표적인 글쓰기 수단인 블로그 쓰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문서를 예문을 들어가면서 실제로 클리닉해 준다.

이 책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쉽고 명료하다는데 있다. 감사편지, 부모님에게 쓰는 편지, 자녀에게 보내는 이메일 등 일상적이고 사소한 글쓰기에서부터 의뢰서, 사과문, 독촉장, 보도자료와 같은 다양한 비즈니스 문서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고민없이 저자가 마련해 놓은 매뉴얼에 맞추어 작성하면 훌륭한 문서가 완성되고, 이들 문서는 기대하던 좋은 결과의 지름길로 안내해 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책은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실용서로 많은 이들의 글쓰기와 문서작성에 자신감을 심어줄 것이라 기대된다. 이 책의 전반부에는 문서쓰기의 기본 규칙을 설명하고, 후반부에서는 실제 예문을 들면서 단점을 지적하고, 어떻게 고치면 좋을 지에 대한 조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비즈니스 글쓰기/ 하구치 유이치 지음/ 이동희 옮김/ 전나무숲 刊/ 10,000원)




수면무호흡증, 흡연 만큼 뇌경색에 해로워 뇌경색의 주요한 위험인자 찾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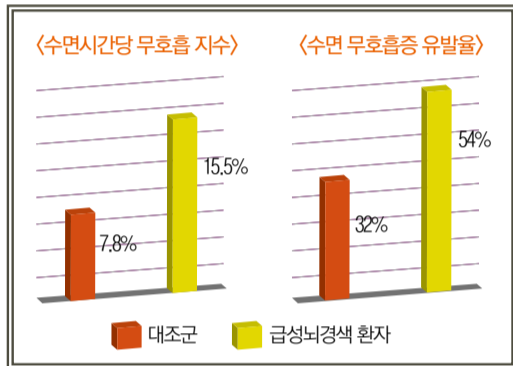


신경과 정기영 교수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수면무호흡증이 급성뇌경색과 연관성이 매우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신경과 정기영(鄭起永, 41)교수팀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8월까지 급성뇌경색환자 74명(남39명, 여35명)을 대상으로 수면무호흡증 유병율을 조사한 결과 둘 중 한명 꼴인 39명(54%)이 수면무호흡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같은 연령의 대조군 64명(남26명, 여38명)의 수면무호흡증이 20명(32%)인 것에 비해서 1.7배 높은 비율이었다. 수면시간당 무호흡지수는 대조군은 7.8이었으나 급성뇌경색 환자는 15.5로 2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수면무호흡지수는 수면장애 증상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무호흡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수면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연구팀은 급성뇌경색과 수면무호흡증의 상관관계에 대해 “수면무호흡증은 저산소증을 발생시켜 동맥내막

손상을 일으킬 확률을 높이는데, 이는 동맥경화를 촉진시켜 뇌혈관이 좁아지고 혈전을 만들어 결국 급성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게 된다” 며 수면무호흡증이 급성뇌경색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기영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는 뇌경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위험인자 뿐만 아니라, 수면무호흡증도 뇌경색의 주요한 위험인자임을 인지하고,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함을 시사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고 말했다. 



이달의 베스트 친절직원!! 환자를 내 가족과 같이! 소아청소년과 유명 교수



안암병원은 지난 4월 22일 낮 12시 소아청소년과에서 ‘이달의 친절직원’을 선정해 포상했다. 이달의 친절직원에는 소아청소년과 유명 교수 가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상은 고객소리함과 온라인 추천 등 고객관리시스템(VOC)을 통해 접수된 만족사례를 종합평가해 최우수자를 매월 선정하기 때문에 환자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직원이 매일 수상하고 있다. 유명 교수는 “소아청소년과 모두는 환자를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대하려 노력하고 있다” 고 말했다. 

고대 안암병원과 아웃백 동묘역점이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여행 정보

봄바람 살랑-설렘을 City Tour와 함께...

아름다운 국제해양의도시 여수



돌산대교 야경



거북선 모형



오동도 전경



국보 제304호 진남관

벚꽃 소식이 멀리 남쪽에서부터 들려오고 있다. 나들이의 계절, 카메라를 들고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봄이 느껴진다. 멋진 바다와 동백꽃! 향일암의 시원한 바다와 서대회무침, 문득 바다가 그리워지면 전라선에 몸을 싣고 만개의 동백꽃과 함께 향일암에 올라 시원한 물 한 모금과 탁트인 남해의 전경. 4월의 봄기운과 함께 여수의 명물 돌산대교를 배경으로 잔잔히 떠오르는 남해의 해를 맞으며 소원을 빌어보자!

■ 바다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경관 여수

3년 앞으로 다가온 2012년 여수세계 박람회(EXPO 2012 YEosu KOREA)를 한창 준비하고 있는 여수는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인”이라는 주제로 바다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바다와 인류의

삶을 성찰하는 기회와 더불어 21세기 “바다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 형형색색 다이나믹한 돌산대교의 야경

돌산대교에서는 바다, 섬 여수항이 함께 어우러진 모습을 볼 수 있다. 여수남산동과 돌산읍 우두리를 잇는 길이 450m 왕복 2차선의 국내 최대 규모의 사장교로 주변의 아름다운 해상 풍경과 대교에서 바라보는 여수항의 야경은 환상적이다.

다리의 여수 쪽에는 팔각정으로 꾸며져 있는 전망대가 있어 그림처럼 아름다운 여수항을 내려다 볼 수 있고 돌산대교를 건너면 다리 바로 아래 횡집촌과 유람선 선착장이 있다. 예전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거북선모형과 오동도로 향하는 유람선, 돌산섬의 끝쪽에

있는 향일암을 돌아오는 관광유람선이 관광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돌산대교, 돌산대교 준공탑 조명은 여수를 찾는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추억과 정서를 갖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 체험교육장의 해양수산과학관

19개의 수족관에 100여종 1500마리의 어류를 전시하고 있으며 전시실에는 패류와 갑각류를 비롯한 어업의 발달사와 해양과학의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여수해양수산과학관은 상세한 설명과 함께 직접 우리의 근해에서 볼 수 있는 어종들을 직접 만져보고 피부로 접할 수 있어 어린이들에게는 체험교육장으로도 손색없다.

■ 국보 제304호 진남관

국내 최대의 단층 목조건물로 국보 제304호로 전라좌수영의 본영이다. 임란때 해전상황, 전라좌수영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 붉은 동백꽃 향기가 가득한 3월... 오동도

섬모양이 오동잎을 닮았고 예전에 오동나무가 많아 오동도라 불리며 동백이 피는 3월에는 붉은 동백이 섬 가득 피어난다. 여수의 대표적인 자랑거리의 하나인 오동도는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와 자연림, 야경 등으로 여행객의 발길을 붙잡는 여행지다. 시원한 바람과 함께 서쪽 방파제를 따라 걸으면 오동도에 이른다. 걷기에는 좀 멀듯하나 이색 탈거리 동백 관광열차를 이용해서 들어갈 수 있으며 유람선을 타고 오동도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시티투어 예약 전화: 061-666-1201~3
인터넷예약: <http://tour.yeosu.go.kr>

클.사진 원네기자 강용길 koreatzp@korea.ac.kr

